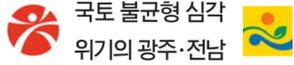


대규모 지역 프로젝트 발굴 성장 거점으로



<3> 지역 쇠신 노력 필요

인구가 급감하고 소득이 낮은 지역에 대해 국가 재정과 정부부처의 신규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외·낙후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1970~2000년까지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수도권과 영남권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충청권에 국가 재정 및 정책을 집중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호남권

낙후된 호남에 '맞춤형 정책' 없는 국가균형발전은 없어
광주 AI·전남 블루 이코노미 등 정부 전폭 지원 뒤따라야

개발과 발전에서 소외돼 낙후의 대명사가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정 없이 문재인 정부·더불어 민주당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에서 나사고 있어 광주·전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소외·낙후를 벗어날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5조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해 현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지역 내에서 혁신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하며, 지역 쇠신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 정부의 불균형 정책에 의해 소외·낙후된 호남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없는 국가균형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지역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견철 전남관 광재단 대표이사는 "철도, 도로, 항만 등 지역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미흡한 광주·전남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호남 소외·낙후의 책임은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에 기인한 것이며, 이를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조사제도와 관련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 이원화, 지역낙후도 가점제도의 변경 등 '공공기관 예타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만이 아니라 비수도권 내 불균형을 반영해야 하며, 지역 낙후에 대해 보다 높은 가점을 차 차별화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예타에서 탈락한 지역속원사업 23개(사업비 24조1000억원)를 면제해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줬지만, 이 역시 이미 기반시설을 갖춘 영남권, 충청권에도 더 큰 혜택을 줬다. 고속도로와 철도의 경우는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된 사업만을 대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2면으로 계속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역균형 뉴딜, 낙후지수·균형지표 반영해야

靑,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광주시장·전남지사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판 뉴딜사업에 '지역균형 뉴딜'을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사업 취지를 살려 균형발전지표, 낙후지수, 소멸위기지역 등에 근거해 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구, 경제성, 접근성 등을 중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국책사업 공모 등이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고착시켰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논의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로 이뤄졌다. 전략회의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착공식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친환경 공기 산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건의했으며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는 11월 전남형 상생 일자리 선포식에 문 대통령의 참석, 48조원 투입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

원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등 기존 3대 축 이외에 '지역균형 뉴딜'을 새롭게 추가해 75조 3000억원(47%)을 지역사업 프로젝트로 배정할 예정이다. 뉴딜 공모사업에는 각 지자체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지역 발전도에 따라 차등된 가점을 부여하며 분야별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해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며, 지역을 변화시키

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부터 생생하게 구현하며, 지역 주도의 창의적 발전 모델을 창출하고,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제5회 동주문학상 김룡·강주 시인 공동 수상

광주일보·'시산맥' 공동 주관
동주해외작가상 한혜영 시인
11월 28일 조계사서 시상식



김룡 시인 강주 시인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5회 동주문학상에 김룡·강주 시인이 공동 선정됐다(인터뷰 17면). 수상작은 각각 '집에 두고 온 복숭아를 보러 가던 여자가 말했다, 폭 같이 보러 가요' 외 4편과 '밤의 전개도' 외 4편. 총 230명이 시집 응모를 한 이번 공모전에는 16명의 작품이 예심을 통과했으며 7편의 후보작품이 최종 본심에 올랐다. 심사를 맡은 장옥관·김행숙 시인과 유성호 평론가는 김룡의 시에 대해 "탄성과 내성을 결속한 어법과 이미지를 통해 때로는 둔중하고 경쾌한 삶의 순간들을 잡아내는 데 출중한 성취를 이루었다"고 평했다. 또한 공동 수상자인 강주 시인 작품에 대해서는 "신선하고 날랜 언어와 감각이 신예다운 패기와 함께 펼쳐져 새로운 목소리를 전해주었다"고 밝혔다.

김룡 시인은 2007년 문화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문학동네 동시문학상 대상, 지리산문학상 및 경남아동문학상을 수상했다. 강주 시인은 2016년 '시산맥'으로 문단에 나왔으며 제1회 정남진시인

시문학상을 받았다. 상금 1000만원은 각각 500만원씩 수여된다. 아울러 해외에서 우리말로 시를 쓰는 시인을 대상으로 한 동주해외작가상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혜영 시인에게 돌아갔다. 1994년 '현대문학'시 추천으로 등단한 한 시인의 이번 수상작은 '검정사과농장' 외 4편이며 상금은 300만원이다. 또한 동주해외작가특별상은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 거주하며 글로벌 한미 종합문예지 '한술문학' 대표를 맡고 있는 손용상 시인이 선정됐으며, 올해 새롭게 공모한 제1회 동주해외시인상은 시애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소희 시인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1월 28일 오후 4시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상생발전위 1년만에 열린다

27일 도청서 실무위 개최

광주·전남 주요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상생발전위원회가 1년 만에 열린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실무위원회를 통해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도는 오는 27일 전남도청에서 상생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연다. 다음달 말 예정인 상생발전위원회에 앞서 논의의 안건, 의제 등을 확정짓는 절차다. 기획조정실장을 대표로 양측 실·국·청장들이 만나 그동안 상생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한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2014년 10월 구성돼 협력과제를 추진했다. 이번 상생발전위원회에서는 코로나 19 이후 시도 공동 관광전략 마련, 지역 농산물 공동 판매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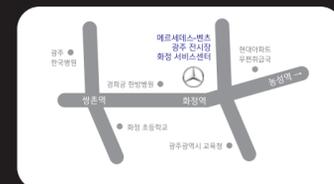
지방 이전 대응, 광주 군 공항 이전 등의 이슈와 관련해서도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다만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나주 SRF(고형폐기물 연료) 열병합 발전소 가동 문제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관련 주체가 참여한 민관커뮤니티에서 논의 중이라는 점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시도 행정통합과 관련한 문제가 공식 의제가 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리지만, 전남도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공식 의제화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The new GLA & The new GLB #UrbanAdventure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16(수영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603(수운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A 250 4MATIC (배기량: 2499cc, 엔진출력: 184kW, 252마력, 0-100km/h: 7.2초, 최고속도: 200km/h) (수영동)
GLB 220 (배기량: 2199cc, 엔진출력: 150kW, 204마력, 0-100km/h: 7.2초, 최고속도: 180km/h) (수영동)
GLB 250 4MATIC (배기량: 2499cc, 엔진출력: 184kW, 252마력, 0-100km/h: 7.2초, 최고속도: 200km/h) (수영동)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운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형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